# 목포 시내버스 외부감사 착수

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경영 투명성 위해 2년간 재무재표·보조금 등 점검 …21일까지 시민 설문조사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가 실시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 4차 회의 및 외부감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버스업체에 대한 외부감사는 경영상태에 대한 명 확한 진단과 버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권고했던 사항이다.

이어 지난 3차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 문기관을 감사기관으로 선정했다.

감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무재표와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경 영실태 및 재무재표 분석, 현장 실사점검 등을 실시

감사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감사 결과는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회위는 시내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회사측 에 자구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통해 공론화위는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경영합리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16일부터 21

설문조사는 목포시 1036명을 대상으로 이동인구 가 많은 교통 거점 등에서 구조화된 설문지 및 전문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공론화위는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구성 인원이 기존 15명에 서 20명으로 확대됐다.

조례 개정은 공론화위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 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수해 쓰레기 4000t 수거했는데…

무안군 "영산강 상류서 계속 유입…복구 비용・시간 더 들 듯"

무안군이 7월 초 집중호우로 영산강 상류에서 밀려온 수해 쓰레기 4000여t을 수거 완료했다.

무안군은 수해 직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긴 급히 예비비를 투입해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했으 며, 인구밀집지역인 남악·오룡 신도시부터 몽탄 면 이산리까지 15km 구간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무안군의 빠른 조치로 쓰레기는 수거 완료된 상태지만, 영산강 상류지역 수해쓰레기가 지속 적으로 밀려오고 있어 강변을 깨끗하게 복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전남도와 환경부에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으로 15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쓰레 기 처리에 군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완벽 한 처리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최근 기온 이 상승하면서 야적된 수해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축제보다 코로나

목포시 '항구버스킹' 등 주요행사 연기…25일까지 특별 방역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행 사 일정 조정에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 게 늘어나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2021 목포 항구버스킹'을 잠정 연기했다.

시는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근대역사관1관 입 구 광장, 북항 노을공원, 평화광장 야외무대 등 4 개소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버스 킹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운영할 방침이다.

19일부터 예정됐던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도 잠정 연기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 일정을 재 조정할 방침이다.

또 23일 열기로 한 '목포해상W쇼' 개막행사도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살펴서 개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목포해상W쇼는 춤추는 바다분수, 해

상무대 공연, 불꽃쇼가 한 데 어우러지는 행사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30 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특별방역대책 을 수립해 주요 관광지, 마스크 지속 착용이 곤란 한 시설(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학생 이용시설(학원·교습소, PC방, 동전노래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숨은 감염 전파 자를 조기에 파악·격리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종 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도 시행할 방침이 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신안 햇 단호박 300t 일본 간다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질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난 2021년산 단호박 300t이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신안에서는 지도, 안좌, 하의, 신의, 장산 등 77 ha에서 100여농가가 단호박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도읍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신안 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 고 있어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

다이어트식품으로도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 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단호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대, 멀칭비닐, 단호박세척기 등 자체사업 으로 1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계화와 재정적 지원으로 신안 단호박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씨월드고속훼리, 해남·진도군에 수재 성금

제주기점 항로 1위 연안여객선사인 씨월드고 속훼리(주)가 지난 14일 해남군과 진도군에 수 재 구호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남과 진도에는 최근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주민들이 예 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생활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졌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수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고 말했다.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밥차, 연탄 나눔행사, 소년·소녀 초청 만찬 음악 회,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복지재단 기부 등 사 회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내년 4월 '새로운 제주뱃 길, 바다위 KTX'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주기점 최단 거리 항로인 진도항에서 쾌속선 '산타모니 카호'를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010-2845-4754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광군, 유소년 승마단원 20일까지 추가 모집

영광군이 승마에 관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광 유소년 승마단 단원을 추

영광군은 지난 2017년 5월 13명의 초·중학생을 선발해 영광군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했다. 현재 단 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전남 소 년체전에 참가해 전남도 대표로 뽑히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유소년 승마단 추가모집 인원은 4명으로 만 8세(초등 2학년)에서부터 만 13세(중등 1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활동이 가능한 단원을 간단한 서류심사와 실기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

지원방법은 현장(영광 승마장) 및 이메일(email) 접수가 있으며, 지원서는 영광군청 홈페이 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류접

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 승마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유소년 승마단을 비롯하여 학 생승마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승마문화 대중화에 기 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매년 유소년 승마단 훈련비, 선수복 구입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 며, 지난달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을 착공해 2022년 하반에는 기상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승마장 을 완공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